

○● 특 집 도서관과 독서활동

#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 1. 들어가며

학교도서관 정보화사업(2000~2007)과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2003~2007)으로 학교도서관이 설치 혹은 리모델링되어 기본 시설 및 장서가 확충되었다. 이러한 물리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인적자원이 확보되었다면 도서관 그 자체만으로 이미 독서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독서란 책, 신문, TV, 영화, 인터넷 등 사람이 시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의미하며 학교도서관도 이러한 다양한 독서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과 자료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독서교육이란 주로 문자로 이루어진 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서교육을 의미한다.

학교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은 몇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원하는 주제의 책을 자신의 수준에 맞게 스스로 골라 읽을 줄 아는 학생들, 둘째, 논술수업, 수행평가, 개별독서 등을 위해 정해진 책을 찾는 학생들, 셋째, 환타지만을 골라 읽는 학생들, 넷째, 주제에 상관없이 만화책만을 읽는 학생들, 다섯째, 책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친구가 없어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보내기 위해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 여섯째, 베스트셀러나 영화화된 책만을 찾는 학생들, 일곱째, 책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박정선**

서울경북고등학교 사서교사  
zindalep@hanmail.net

학교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스스로 바람직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서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독서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PC, 복사기 및 영화를 보기위해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 등.

위의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전체 학생수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 물론 학교도서관에서만 독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책을 구입하거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독서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스스로 바람직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서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독서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학교교육 관계자들도 입을 모아 학생들의 고등 사고능력 신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향상 및 인성교육을 위해서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정작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독서활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각급 학교 및 단위학교별로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다르고 독서교육 방법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상

황에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고등학교 사서교사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독서교육 활동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2 독서동기 유발을 위한 독서교육

학교도서관의 기반이 조성되고 나면 각급 학교도서관에서는 도서관시설과 자료 이용의 활성화 및 학생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한다. 각급 학교별, 단위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서교육활동에는 대개 학교도서관 이용 교육, 도서관 소식지 발간, 다독 우수자 시상, 우수 독후감 시상 및 도서관과 독서에 관련된 날(도서관주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서울국제도서전, 독서의 달, 세계 학교도서관의 날, 책의 날)에 실시하는 책갈피 만들기, 책 속 보물찾기, 독서 퍼즐대회, 독서퀴즈대회 등이 포함된다. 물론 이러한 활동들은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격려하여 더욱 활발한 독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독서에

**독서 동기유발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서교육이 필요하다.**

무관심한 학생들에게 독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미 어느 정도 독서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학생들로 제한적이다. 설혹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이런 행사들은 대부분 1~2회에 그치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속적인 독서활동을 유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독서 동기유발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서교육이 필요하다.

### **3.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서교육의 모색**

서울시교육청은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과별 독서지도 매뉴얼(2005, 2006)을 발간하여 보급하였다. 교과별 독서교육이 교과학습을 향상시키고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사들의

교과별 독서수업은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교과교사들은 정해진 학습 진도, 교과수업 이외에 별도의 독서수업 준비 및 독서 후 활동 평가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선뜻 교과연계 독서교육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독서란 입시와는 무관한 활동이기에 시간이 있다면 교양을 위해 좋은 활동, 공부하다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 필요한 활동, 혹은 논술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독서활동이 학습과 관련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고 여기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교과교사와 독서에 대해 크게 거부감은 없지만 스스로 독서시간을 내서 독서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사서교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1학년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이하 창의시간)을 이용하여 도서관에서 교과연계 독서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독서교육의 목표는 창의적 재량활

동이 추구하는 자기 주도적인 능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인간 교육의 실현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창재시간에 독서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

사서교사가 실시하는 교과연계 독서교육은 교과교사들의 이해와 참여를 얻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교과연계 독서교육의 과목 수는 연간 창재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과목과 연계를 해 놓으면 너무 빡빡한 일정에 학생도 교사도 지치게 된다.

다음으로 교과연계 독서교육을 희망하는 교과교사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연계 독서교육을 진행할 교과 단원, 관련 도서 선정, 독서 시기, 독서 기간, 독서 후 활동 방법, 수행평가 반영 여부, 평가 주체 및 평가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교과연계 독서교육의 실행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연계 도서를 선정하고 도서관에 준비해 두는 일이다. 독서교육을 원하는 교과와 단원 혹은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수준별로 다양하게 준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맞는 책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도서관에 책을 준비하기 전에 학생들의 수요를 미리 조사하는 것도 학생들의 독서의욕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평가는 독서활동 및 독서 후 활동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사서교사

와 교과교사가 함께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방법은 매 시간 읽은 내용에 대한 간단한 메모와 독서 후 활동으로 나누어 평가하되 다양한 표현양식으로 독서록을 작성하게 하거나, 독서토론 등을 적절히 혼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연계 독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독서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는 좀더 심도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화, 환타지 및 베스트셀러 등에 치중하는 학생들에게는 다른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독서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독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 4. 개별 독서교육

개별적으로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 중에는 자신이 필요한 책의 이름을 알고 오는 학생들도 많지만 주제별 혹은 상황별로 책을 찾는 아이들이 더 많다. 공부 방법에 관한 책, 진로, 진학에 관한 책, 철학, 심리학, 정치, 경제, 한국근현대사 등, 주제별 책을 추천해 주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사랑에 관한 소설, 부드러운 책,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책, 재미있는 소설 등을 추천해 달라고 할 때는 금방 답이

**사전에 준비된 도서목록과 추천도서 코너는 좀더 세밀한  
독서지도를 요구하는 학생들에게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효율적인 독서지도 방법이다.**

나오지 않는다. 학생이 어떤 사랑, 어떤 재미, 얼마만큼의 가벼움을 원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쉬는 시간이나 학생들이 몰려오는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요구하는 상황에 맞는 도서를 학생 수준에 맞춰서 추천해 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많이 요구하는 주제별, 상황별 도서 목록을 작성하여 가까이 두는 것도 개별적인 독서지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또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논술 대상 도서, 성장소설, 교과별 추천도서, 진로 및 진학 관련도서, 학습방법 관련도서 등은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위치에 별도로 가를 마련하여 상시 비치해 두어 학생들이 손쉽게 원하는 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독서지도 방법이다. 이처럼 사전에 준비된 도서목록과 추천도서 코너는 좀더 세밀한 독서지도를 요구하는 학생들에게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효율적인 독서지도 방법이다.

이처럼 스스로 찾아와 개별지도를 요구하는 학생들 이외에도 개별 독서교육이 필요

한 학생들이 있다. 교과연계 독서교육을 실시하는 창재시간에도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 도서관에 오면 여전히 만화, 환타지만을 읽고 또 읽는 학생들, 도서에 전혀 관심이 없지만 갈 곳이 없어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에 대한 독서교육이 필요하다. 이 학생들에 대한 독서교육은 독서상담과 독서치료를 결들인 장기간에 걸친 독서교육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항상 시간에 쫓기는 사서교사들에게는 매일 당면하는 문제이면서도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독서교육도 독서상담, 독서치료 및 미술치료 등의 연수를 받은 사서교사들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시도되고 있다.

## 5. 교사와 어머니 독서회 운영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사서교사가 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할 만한 독서활동으로 학생들의 CA활동인 도서반 활동 이외에 어머니 독서회, 교사 독서회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단위학교에서 어머니 독서회는 많이 운영되고 있지만 교사 독서회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학교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협력해야 하듯이 학교교육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독서활동도 학생, 교사, 학부모 차원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독서활동은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교사와 학부모 스스로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부모로서 교사로서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부모상, 교사상 그리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간상을 정립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이 독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세계 속에 존재하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독서활동은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모두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해줄 책들이 가득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가 어머니 독서회, 교사 독서회 등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 6. 나가며

이상으로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가 운영할 수 있는 독서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서관련행사, 교과연계 독서수업, 개별 독서교육 등 어느 것 하나 빠뜨릴 수 없는 독서활동들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활동들은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들이 잘 정비되고 새로운 자료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학생과 교사들에게 적절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일이 전제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들이다. 학생과 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은 원하는 자료가 모두 있는 곳’이라는 신뢰감을 갖게 하고 ‘사서교사는 원하는 책을 가장 적절하게 선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독서환경의 조성이고 안정된 독서생활화를 이끌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사서교사들은 독서교육의 주체로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서토론, 독서지도, 논술, 독서치료, 미술치료, 북아트 등 독서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연수들을 받아가며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교육에서 독서교육은 모든 교사들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기도 하지만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자료의 전문가인 사서교사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독서교육도 매우 바람직한 독서교육이라고 생각한다. 